

The
따뜻하게

희망
인터뷰

글.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홍보팀



경찰을 꿈꾸던 열혈소녀 신장 질환 명의로 우뚝 서다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신장내과 장윤경 교수

지난 한 해 우리 사회는 '희망'이란 말을 떠올리기에 너무 힘든 일이 많았다. 서로에게 나침반이 되어 희망의 길로 안내해주는 누군가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다. 2015년 가톨릭대 대전성모병원 보 '손길'에서는 언제나 환자들의 나침반이 되어주고 있는 의료진의 인생이야기를 들어본다. 그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신장내과 장윤경 교수다. 응축된 에너지로 여전히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고 있는 장윤경 교수의 열정 속으로 들어가보자.





신장 질환은 진단과 동시에 수명이 결정되기보다 환자의 경과와 결과가 매우 다르기 때문에 오랜 기간 지켜볼 수 있는 탐구 정신과 끈기가 필요합니다.

장 교수의 어릴 적 꿈은 경찰이나 기자였다. 나쁜 사람들을 잡아 벌을 주고, 사회의 부조리와 비리를 파헤치고 싶었다고 한다. 그러다 어느 순간 아프고 불편한 사람들을 고쳐주고 도와주는 일이 더 절실했다. 의사가 꿈이 되는 순간이었다.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려고 했던 점에서는 일맥상통하죠? 제가 좀 착했어요(하하하). 낙낙하지는 않았지만 큰 어려움 없이, 교만하지 않을 정도의 실력으로 공부하며 꿈을 이루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지.”

사람에 대한 관심과 냉철한 이성 갖춰야

의사가 되는 길은 대학교에 입학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었다. 여태껏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던만 의대에서는 이미 해온 것보다 몇 배는 더 엄청나게 많은 공부를 해야 했다. 또 당시 의료계는 상하 위계질서가 엄격했고, 개인적인 시간은 매우 제한되어 있었다. 덕분에 현장에서 환자는 물론 환자의 가족들과 부대끼며 수많은 밤을 하얗게 지새웠다. “그 시간들이 의사로서 성장하는 자양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전공의 초기에 신장내과에서 2주 동안 초긴장 상태로 새우잠을 잔 적이 있어요. 몇날 며칠 밤을 새다 병동환자가 위중해서 중환자실로 옮길 시점에 정작 저는 실신했지 뭐예요.” 장 교수는 사람에 대한 관심과 냉철한 이성이

의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한다. 의사가 되기까지 많은 난관과 역경 속에서도 끈기 이 그 길을 가는 것은 분명한 목표의식이 있어서다. 그리고 그 목표의식을 이끄는 원동력은 바로 사람에 대한 관심과 냉철한 이성이란 다. 여기에 신장내과 의사에게는 탐구 정신과 끈기를 보탤다. 신장 질환은 진단과 동시에 수명이 결정되기보다 환자의 경과와 결과가 매우 다르기 때문에 오랜 기간 지켜볼 수 있는 끈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장 교수를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할까? 한마디로 까칠한 슈퍼우먼이란 다. 예의를 따지고, 원칙과 어긋난 변명은 딱 싫어하며, 잘못이나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자세나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한다. 그래서일까? 육아와 가사 그리고 진료와 연구 어느 것 하나 허투루 하는 법이 없다. “버팁니다. 힘들고 쫓길 때마나 주위를 둘러 봐요. 직장과 가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김석영 교수님과 동료들, 무던하게 기다려 주시고 격려해주신 부모님과 남편 그리고 아이들... 감사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의사, 선배, 관리자, 연구자로서 장 교수는 치열한 경쟁 속에 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위를 돌아보며 감사할 줄 아는 그녀의 여유로움에는 진정한 내공이 숨어 있었다. 또 치열한 환경을 자신의 나태함과 의존성을 깨는 기회로 활용하는 지혜도 엿볼 수 있었다.



환자는 나의 에너지, 의사라는 직업은 축복
어느새 장 교수도 중년에 접어들었다. 존댓말을 더 많이 듣게 되고, 후배도 많아지고, 가르침을 받기보다 가르칠 것이 많아졌다. 요즘 유행어처럼 더할 나위 없다. “할 수 있는 일과 할 줄 아는 일이 많아졌다는 점에서 행복합니다. 후배들에게 조언이 가능한 것도 좋고, 내공을 털어 환자를 진료할 수 있어서 참 좋아요. 불편함을 호소하는 표현이 매우 다양하잖아요. 이제는 척 하면 척이죠” 예나 지금이나 환자 진료를 할 때 가장 행복하다는 장 교수는 평소에도 온통 환자 생각뿐이다. 잠시 틈도 없이 또 70대 할아버지에 대한 고민을 털어 놓기 시작했다. 가톨릭대 대전 성모병원에 발령받고 얼마 되지 않아 방광암과 신장 질환의 감별 진단이 필요한 할아버지가 방문했다. 정밀 검사를 진행하던 중 할아버지가 한탄을 늘어났다. 복지 혜택 하나 없이 경제 여건도 좋지 않은 상황에 기본 검사만도 부담되는 정밀 검사를 하다 보니 만만치 않은 진료비가 걱정됐던 것이다. 결국 중요한 검사는 제대로 받지도 못한 채 발길을 돌린 할아버지가 다시 떠오르는 듯 깊게 한숨을 내쉬었다. 검사를 처방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사회 경제적인 면을 배려할 수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았을 것이다. 그러나 환자의 사회 경제적인 배경을 근거로 진료를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고 논란의 여지가

있긴 마찬가지 일 것이다. 장 교수는 그마저도 자신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아쉬워하고 있었다. **부모님과 은사님의 조언으로**
자신의 내가 있는 것
이렇듯 실력과 따뜻한 마음까지 다 가진 의사의 멘토는 과연 누구였을까? 멘토링의 중심에만 있을 것 같은 장 교수의 멘토는 부모님이란다. 세상이 변하고 생각의 범위가 성장하고 주변 환경의 소용돌이 같은 변화 속에서 방향을 잃지 않도록 붙잡아 준 분들이 바로 부모님이었다고. 늘 행동으로 보여주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지지해주는 부모님을 떠올리며 배움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었다. 더불어 의사로서 멘토는 따로 있었다. “대학 은사님 중 신영태 교수님입니다. 레지던트 1년차 때는 막연하게 의사는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가짐과 굳건한 의지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구체적인 진로를 찾지 못하고 있을 때 내과 의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확고히 붙들어주신 분입니다. 의사는 환자 앞에서 절대 자만하거나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과 변명과 거짓보다 자신의 무지를 정직하게 인정해야만 다시 성장할 수 있다는 원칙을 가르쳐 주셨죠. 지금까지도 제 삶의 과정에 좋은 예와 가르침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장 교수는 부모님의 애정과 신영태 교수님의 조언을 가슴에 새기며 그동안 누구보다 열심히

히 살아온 듯 했다. 지금도 여전히 그 가르침을 잊지 않고 실천하기 위해 수많은 밤을 하얗게 지새운다. **초심으로 돌아가 연구에 집중하고 싶어**
최근에는 연구비 유치를 위한 공부와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가족과 환자를 돌보는 일 그리고 연구, 그 어느 것 하나 포기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속도는 더디고 더디었겠지만 장 교수는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최선을 다해 달리고 있다. “저는 제가 잘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게 해 포기하고 싶은 어려운 일까지도 이끌어 주는 원동력이 되거든요. 매일 초심으로 돌아가 주어진 소명을 더 이루고 싶습니다. 그동안 저도 발전한 면이 있고 의료 환경도 참 많이 성장했습니다. 이제 연구에 더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